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생)

달빛소녀와 죽음의 도시

(청소년 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환경)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208쪽

주제어 : #환경 #쓰레기 #왕따 #희생 #신화 #성장

분 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달빛소녀와 죽음의 도시

청소년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환경

구 성

활동	수업	활동 제목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2차시	•거침없이 쓰기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참고자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읽기 중 활동	3차시	• 줄거리 정리하기 • 잠깐 멈춤! 생각! • 옮겨 쓰고 낭독하기	•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4차시		•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5차시		•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읽기 후 활동	6차시	• 내용 이해하기 • 나와 연결하기 • 깊이 이해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7차시	• 토론하기	•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8차시	• 생각 확장하기	•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참고자료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독후감 쓰기	9차시	• 독후감 쓰기 준비 • 독후감 쓰기	• 편하고 쉽게 독후감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10차시	•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제목] 제목인 '죽음의 도시'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
.....

2. [앞표지] 표지의 '검은 물'과 '쓰레기'를 보며 고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
.....

3. [앞표지]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
.....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쓰레기산	#생수 문제점	#태평양 쓰레기섬
.....

책과 친해지는 습관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읽기를 멈추고 골똥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똥히 생각해 보세요.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1> 깜깜한 비가 내리는 날		
<02> 기묘한 실종사건		
<03> 화장실에 감춰진 비밀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기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옳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옳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루미가 품은 의문에 답해보세요.

엄마는 소미와 함께 화장실로 갔고, 나는 아빠가 잠들어 있는 묘역을 향해 먼저 걸어갔다. 아빠가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 올 때마다 나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힌다. **아빠는 왜 아무 인연도 없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던졌을까?** 모두가 숭고한 희생이라고 기리지만,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어버린 나와 소미에게 그 희생이 마냥 숭고할 수만은 없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아직도 아빠를 존경하고 그립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끔 혼자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 다 그 빈자리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절히 느껴진다.

- 56쪽 -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4> 샘골에 닥친 비극
<05> 좋은 날 끝에서 싫은 날 앞에서
<06> 죽음의 도시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옹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옹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샘골처럼 도시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농촌에 각종 공장, 오염시설, 오락시설이 들어서면서 환경오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인을 위해 농촌이 희생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은 맑은 물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샘골에 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돌았다. 업체는 지하수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먹는 샘물'로 파는 회사였다. 워낙 물이 좋으니 먹는 샘물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격렬하게 다투었는데, 결국 업체는 허가를 받고 들어섰다. 연화네는 별 쓸모도 없는 작은 임야를 소유했었는데, 먹는 샘물 업체가 보상금을 제법 챙겨주었다. 연화네로서는 그때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다. ... (중략) ...

샘물 업체가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맑은 물이 넘쳐흐르던 샘골에 변화가 생겼다. 멀쩡하던 우물이 마르고, 농사지을 물까지 부족해졌다. 먹는 샘물 회사가 대규모로 지하수를 뽑아내면서 벌어진 현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업체에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비가 조금만 적게 와도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잦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면서 인심도 팍팍해졌다. ... (이하 생략) ... 89~90쪽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7> 연꽃을 든 미소년
<08> 신성한 힘
<09> 화염과 폭풍 속으로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이제껏 아무런지 않게 쓰고 버렸던 쓰레기가 우리가 사는 곳으로 모두 돌아온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쓰레기와 먹구름과 빗물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하늘을 뒤덮었다. 굵은 비가 내렸지만, 머리 위에 떠 있는 우산 덕분에 나와 아기는 비를 맞지 않았다. 쓰레기폭풍은 넓게 퍼져서 도시 위를 덮었다. 쓰레기는 검은 비가 되어 도시 곳곳으로 떨어졌다. (중략)

며칠 동안 도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온갖 곳에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를 치우느라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

- 206~207쪽

내용 이해 + 나와 연결하기

현대인들이 누리는 편안함은 수많은 오염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기후위기도 그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같지 않습니다. 연화를 통해 편리하게 살려는 욕망으로 인한 피해를 의면하는 태도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1. 자기 뒷자리에 수북하게 쌓이는 쓰레기를 보며 연화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누며 교실로 들어갔다. 나는 음료수를 끝까지 다 마신 뒤에 걸을 감싼 비닐을 벗긴 다음 병은 재활용함에, 비닐은 비닐 수거함에 넣었다. 민혜와 진서는 음료수를 다 마시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 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꽤나 많은 애들이 간식을 먹고는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린다. 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교육 중 하나가 분리수거인데, 여전히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회장으로서 이 점은 꼭 바로잡겠다고 다짐하다가 연화 표정을 보게 됐다.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를 때도, 시를 잘 썼다고 칭찬받을 때도 연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수경이가 다른 애들과 함께 자기를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자기 자리 뒤쪽에 있는 쓰레기통 위에 수북이 쌓인 쓰레기를 보면서도 기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다. 잠깐이었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어떤 감정인지 읽기는 어려웠지만 밝은 느낌은 아니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연화를 관찰했지만 그 표정을 다시 발견하지는 못했다.

32~33쪽

2. 내가 편하게 쓰고 버린 쓰레기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지독한 악취와 삭막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먼저 냄새가 달라졌다. 시골이라고 하면 으레 기대하는 좋은 냄새와는 거리가 멀었다. 처음에는 살짝 거슬리더니 갈수록 불쾌해졌다. 다행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악취는 아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삭막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었다. 무슨 무슨 환경이나 자원이라고 써진 낡은 간판들이 덕지덕지 늘어서 있었다. 쓰레기 더미 뒤로 하늘 높이 솟은 콘크리트 탑이 보였다. 탑 꼭대기에서는 연기가 쉼 없이 뿜어져 나왔다. …(중략)… 우리는 말없이 버스정류장 뒤로 난 길을 걸었다. 불룩하게 솟은 낮은 산에는 말라비틀어진 잎을 단 큰 나무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길과 나란히 난 도랑에는 시커먼 물이 고여서 썩은 내를 풍겼다.

84~85쪽

3. 다음 지문은 황련이 루미에게 앞날을 경고한 말입니다. 이 말은 연화의 앞날을 예측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우리들이 마주할 앞날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루미는 연화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우리들 앞에 닥친 쓰레기 위기를 막기 위해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망스럽겠지만 나는 몰라. 내가 아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연꽃을 피우지 못한 채 이대로 가면 거대한 재앙이 닥친다는 거야. 이제까지 인류가 저지른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닥칠지도 몰라. 세상은 오염물질로 가득하잖아? 특히 바다는 거대한 오염물 덩어리야. 그 오염물질을 만나면 폭주한 연화가 얼마나 거대한 폭풍으로 커질지 어림조차 할 수 없어. 물론 때가 되면 재앙도 소멸할 거야. 무한히 커지는 힘은 없으니까. 물론 연화도 같이 소멸하겠지.”
162~163쪽

4. 사람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사실을 잊고 살지만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늘 깨닫고 산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좋은 말로 해박야 내 말을 들을 민혜가 아니었다.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 봐. 그렇지만 네가 어디로 가든 안전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느 곳에 살든 상하수도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들 각자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삶은 고독한 경주라고 여긴다. 서로 이기심을 채우며 남보다 잘나고 싶어서 애쓴다. ‘홀로 사는 삶’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히다 보니, 서로가 얼마나 기대고 이어져 사는지를 대부분 잊고 지낸다. 수도관이 오염되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물이 오염되자 이 도시에 사는 우리가 모두 공동체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 해외로 가면 돼. 어차피 나중에 유학 갈 생각이었어.”
“지구는 70%가 물이야. 시간은 걸리겠지만 연화는 너를 찾아낼 거야. 다음에 연화가 너를 찾아가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내진 않을걸.”
127~128쪽

토론하기

글(가)에서 루미는 엄마로부터 '감당할 힘이 없으면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처세술(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는 기술)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은 루미 엄마가 강조하는 처세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갑자기 뚱뚱해져서 나타난 연화를 수경이는 “괴물”이라고 부르며 심하게 놀려댔다. 수경이는 2학년 때 연화와 같은 반이었다. 안면이 있으니 놀림거리를 쉽게 찾아낸 듯했다. 처음에는 수경이가 하는 짓을 지켜보기만 하던 민혜와 진서도 언젠가부터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연화를 놀려댔다. 나는 셋과 가까이 지내기는 했지만, 절대 그런 짓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서서 말리지도 않았다. 어찌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감당할 힘이 없으면 나서지 마라.”

엄마가 늘 강조하는 처세술이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친구를 도우면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는 함부로 돕지 못하게 했다. 모든 사건이 터진 뒤에야 정말 도울 힘이 없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귀찮았던 건 아닐까? 아니면 엄마 말을 핑계로 비겁하게 숨고 싶었던 건 아닐까?

다른 애들은 대놓고 놀리진 않았지만 연화를 멀리했다. 연화가 가까이 오면 기겁하며 피했고, 연화가 만지는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으려고 했다. 잘사는 동네 애들뿐 아니라 가난한 동네 애들도 연화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살짝 양심에 찔렸지만 내 능력 밖이라는 핑계를 대며 모르는 척했다.

- 20~21쪽 -

(나)

“연화야! 내가 어떻게든 너를 도와줄게.”

검은 회오리가 내 주위를 휘감았다. 나는 회오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촉감이 묽은 밀가루 반죽을 만지는 것 같았다. 깜깜한 빛이 더욱 진해졌다. 빛이 내 손을 쓰다듬듯이 움직였다. 손끝에서 전신으로 낮설면서도 익숙한 신호가 퍼져나갔다. 그 신호에 맞춰 몸이 심하게 떨렸다. 까닭 모를 슬픔이 요동쳤다. 핏빛보다 진한 고통이 가시가 되어 찔러댔다.

“미안해. 내가 이제야 손을 내밀어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렀다. 연화가 내 볼을 어루만졌다. 눈물방울은 연화에게로 넘어갔다. 검은빛이 눈물방울을 소중하게 감싸더니 회오리 안으로 끌어들었다. 얇은 웃음이 피어났다.

106~107쪽

□ 찬성	□ 반대
감당할 힘이 없으면 나서지 마라는 처세술은 타당하다	감당할 힘이 없으면 나서지 마라는 처세술은 타당하지 않다

■ 내 주장의 근거

■ 친구들의 근거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 잠깐! 고전 읽기

베를린의 한 노동자 부부는 작은 엽서로 히틀러에 저항한다. 그 엽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 부부는 나치에 체포된다. 불잡혀 사형 판결을 받은 노동자를 변호인이 찾아와 그런 어리석은 짓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걸 안타까워한다. 그러자 그 노동자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최소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켰어요. 나는 저들의 미친 짓에 가담하지 않았습시다.”

- 출처 : 『누구나 홀로 죽는다』(한스팔라다)

생각 확장하기

【질문1】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괴물은 ‘안이 아니라 밖에서’ 주인공과 착한 이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진짜 괴물은 ‘밖’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괴물이 숨어 있지 않은지 찾아보세요.

“그럼 해외로 가면 돼. 어차피 나중에 유학 갈 생각이었어.”

“지구는 70%가 물이야. 시간은 걸리겠지만 연화는 너를 찾아낼 거야. 다음에 연화가 너를 찾아가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내진 않을걸.”

협박은 확실히 먹혔다.

“그럼 그 괴물한테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라는 말이야?”

“괴물, 괴물 하지 마! 연화는 괴물이 아니야. 가난하고 약하고 똥똥하다고 함부로 놀리고 깔본 네가 괴물이고, 그걸 모른 척한 내가 괴물이지. 연화는 아니야.”

- 128쪽

“어, 수경이네!”

진서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았다. 진서는 수경이가 회복된 걸 기뻐하며 수다를 떨었다. 한동안 수다를 떨다가 나에게 전화를 넘겼다. 나는 가볍게 안부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수경이가 또다시 내 속을 건드렸다.

“그 괴물 맞지? 수돗물을 영망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년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낯새는 티끌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괴물? 년? 년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이틀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조금 전에 깨어난 친구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참기 힘들었다.

“그 괴물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내 맘대로 부르지도 못해?”

수경이 말에 시퍼런 날이 서 있었다.

“네가 민혜, 진서와 함께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아. 그런 짓 했으면 용서를 빌고 걱정을 해야지. 욕하는 게 정상이야?”

“괴물한테 무슨 용서를 빌어?”

“누가 괴물인데?”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너야말로 괴물 아냐? 걸모습이 이상해서 괴물이 아니라, 너처럼 못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잘못했으면서도 뻔뻔하게 남 욕하는 게 괴물 아니냐고?”

- 153쪽

【질문2】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보세요.

“연꽃 씨앗이 천 년이 지나도 발아하는 까닭은 씨앗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이야. 그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피어나려면 속 씨앗이 얼마나 힘들겠어? 더구나 주변은 온통 진흙탕이니 더 힘들지. 그 힘겨움을 이겨낸 뒤에야 고귀하면서도 강한 연꽃이 돼.”

내게는 희망찬 예언으로 들렸다.

“연화가 곧 시련을 이겨내고 괜찮아질 거란 뜻인 거죠? 연꽃이 피듯이.”

“그거야 모르지.”

“방금 그렇게 된다고...”

“연꽃에 담긴 이치가 그렇다는 뜻이지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야. 복숭아 씨앗에서는 복숭아가 자라고, 연꽃 씨앗에서는 연꽃이 자라. 그건 자연의 순리야. 그 어떤 존재도 그 순리를 깨뜨리지 못해. 복숭아 씨앗을 키워서 연꽃을 피워내는 일은 불가능해. 또 복숭아 씨앗이 저절로 복숭아나무로 자라서 맛있는 열매를 맺지도 않지. 씨앗에 담긴 힘, 주변 환경, 사건 등 수많은 요소가 상호작용해야만 가능성은 현실이 되니까.”

... (중략) ...

“예언인가요?”

황련이 두 손을 양옆으로 슬쩍 들면서 빙긋 웃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흔히 믿는 그런 예언은 없어. 세상은 순리에 따라 흘러. 복숭아 씨앗에서 복숭아가 자라고, 좋은 날씨와 비옥한 땅과 튼튼한 씨앗과 좋은 농부를 만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그건 예언이 아니라 순리야. 미래는 아무도 몰라. 복숭아 씨앗에서 연꽃이 피지 않는다는 예언은 가능하지만, 복숭아 씨앗이 다시 복숭아나무로 자란다는 예언은 가능성일 뿐이야. 세상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해.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헛된 노력이야. **인간은 다만 순리에 따르고, 할 도리를 다하기만 하면 돼.** 결과는 아무도 몰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 162~163쪽 -

“미래는 가능성이야.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되고, 나머지는 사라지지.** 가능성은 무한하고, 무한 중에 무엇이 현실이 되어 과거로 박제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세상이지. 이미 결정된 세상은 지나간 시간밖에 없어.”

- 166쪽

1. '순리에 따르고, 할 도리를 다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2. 내 수많은 가능성 중에 무엇을 현실로 남기고 싶은가요?

【질문3】 은별이가 루미에게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언니, 도대체 왜 저죠? 왜 저를 선택했어?”
“말했잖아. 나는 단지 보여서 봤을 뿐이라고. 그 외에는 나도 몰라.”
“도대체 그 봤다는 게 뭐예요? 뭐냐고요?”
“말해주기 어려워. 나는 아직 그걸 말로 표현할 능력이 없어. 그냥 보여서 볼 뿐이야. 왜 보이는지는 모르겠어.”
은별 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 164쪽

“왜?”
우산 위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왜 그런 거야?”
연화였다.
“왜 목숨을 걸어?”
부드럽고 맑았다.
“네 가족도 아닌데, 왜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했어?”
나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아빠는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하려고 했을까? 뻔히 위험한 줄 알면서도 왜 불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을까? 엄마와 나와 소미를 두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왜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졌을까? 아빠가 그리울 때마다 이 질문이 함께 떠올라 괴로웠다.
“목숨을 구하는 데 이유는 없어.”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왔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으면 구해야지.”
“두렵지 않았어?”
“구해야겠다는 간절함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우산이 두둥실 떠올라 황금빛 속에서 빛났다.
“이 우산을 줄 때도 그런 마음이었니?”
우산이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같았다.
“네 외로움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을 내밀고 싶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손을 내밀어볼래?”
연화가 말했다.
나는 왼손으로 아기를 꼭 안은 채 오른손을 앞으로 살짝 내밀었다.
황금빛이 손으로 쏟아졌다. 따스한 온기가 손을 쓰다듬었다.
“네 손에서는 꽃향기가 나는구나.”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흔히 독후감은 '동기-줄거리-감상', 또는 '요약-인상 깊은 장면-경험·감상'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만 쓰니 독후감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형식'을 택하면 독후감 쓰기도 쉽고, 내용도 신선합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1)형식을 택하고, 2)형식에 맞는 준비를 한 다음, 3)핵심 요령을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쓰면 됩니다. 초고를 쓴 뒤에는 쪽 읽으면서 부드럽게 고치기만 하면 독후감이 완성됩니다.

형식선택	준비항목	독후감을 쓰는 핵심요령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편지 쓰기 형식에 맞춰서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책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담는다.(신변잡기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여는 글 : 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인터뷰 취지를 쓴다. • 인터뷰 : 실제 인물이 답하듯이 쓴다.(역지사지) • 닫는 글 : 인터뷰 내용 정리, 감상, 생각 등을 정리한다.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기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자기 경험을 실감나게 소개한다. • 소설과 비슷한 점을 거론하며 깨달고 느낀 점을 제시한다.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떨지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기행문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내가 소설 속 장소를 방문하거나,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흥미진진하게 서술한다.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룰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기사를 쓰는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사건소개, 인터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섞어서 쓴다. • 기사처럼 제목을 붙인다.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평가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다. • 일정한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이 평가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사고방식 등을 다룬다.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소개한다. • 한 문장이 내게 끼친 영향, 깨달음, 느낀 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세히 서술한다.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 토론주제가 나온 상황을 정리한다. • 자기 의견을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 반드시 반대 의견을 다룬다.(반론과 재반론 형식으로)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 책 내용과 시사문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소개한다. • 책에서 수립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 서평은 책 소개 글이라 소개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설명한다. • 책이 지닌 매력과 책을 권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독후감 예시는 『청소년 독서콘서트』(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독후감 쓰기 준비

- 1단계 : 자신이 원하는 독후감 형식을 선택합니다.
- 2단계 : 선택한 독후감 형식의 준비사항①~③을 오른쪽 '준비사항①,②,③'에 각각 적습니다.
- 3단계 : 독후감에 적을 세부 내용을 각 준비사항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준비사항①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준비사항① 인터뷰 대상 설정 인터뷰 대상 : 설정 설치는 주요, 동선들과 정확하게 같다. 간략으로 모든 것 읽음. 어떤 내용을 읽지 전 받아들이는지 많이. 단행본에서 읽을게 지음. 완구가 때 단편을 받아 읽는지 시유를 포함.
■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준비사항② 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이 독후감 친구들을 읽었을 때 어떤 친구가? 이 친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 친구에서 어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친구가 이 단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준비사항③ 책을 생각해 보기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때와 비교 할까요. 이 책의 어떤 점이 내게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받은 것, 책, 책의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어떤 생각이 깨닫게 되었는지. 이 책을 읽은 것 같다.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읽은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input type="checkbox"/>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input type="checkbox"/>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input type="checkbox"/>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준비사항①

준비사항②

준비사항③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할 때는 평가를 하지 말고 **독자로서 반응**해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독후감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2. 친구들이 쓴 독후감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도 있습니다.